

金 鎮 冠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발묵과 꼴라쥬기법을 통한 ‘등’(燈)의
서정적(抒情的) 추상표현

-本人的 作品을 中心으로-

2005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東洋畫科

金 銀 河

논문개요

예술가는 내면에 살아 움직이는 감정을 예술작품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한다. 그것이 객관화되어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 그 의의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나 문화환경에 의해 반응하여 독자적인 회화양식으로 표현되고 표출된 내용은 예술가의 모든 경험의 총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상생활은 예술에 의하여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감정의 심벌이 된다.

등(燈)이란 불(火)을 사용하여 어두운 곳을 밝게 하기 위한 욕망에서 인간이 창조 개발해 낸 조명구(照明具)를 일컫는다.

등(燈)의 종류 그 모습도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종교의식이나 축제에서 많이 이용되는 사찰의 '등'(燈)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한국적인 미감과 현대적인 감각을 병합시킴에 있어서 기원과 염원의 미의식이 담긴 삶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등(燈)속의 비친 촛불은 스스로를 태워 빛을 발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다양한 의미로 상징되어 왔으며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촛불의 신비한 빛은 인간을 쉽게 몰입시키고, 이에 따라 감정이입(感情移入), 회상(回想), 상상력(想像力)등 인간의 의식 활동은 현현(顯現)해 진다.

따라서 등(燈)의 외형적 형태에 대한 이미지를 원(圓)의 형상화로 표현하면서 사물의 이미지를 조형적으로 가시화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물과 상징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등'(燈)의 이미지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서술과 등(燈)의 조형성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이론적 배경으로 다루었다.

본 작품은 등(燈)의 존재방식 즉, 등속에 불빛은 바람 속에서 위태롭게 보존되지만 그 강인한 생명력은 삶에 대한 생(生)의 의지로서 사유(思惟)된 인간의 의지의 도약을 내용으로 조형화하였으며 분석 대상으로 7점의 작품을 제시하였다.

제작과정에 있어서는 묵(墨)과 섬유(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연결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담묵(淡墨)을 이용하여 조형의 자율성과 즉흥적인 표현성을 통해서 서정적 이미지를 이루어 내고자 하였다. 특히 화면에 의한 꼴라쥬 기법은 한지와 천의 중첩을 이용한 서정적 추상표현의 한 방법이었으며 이러한 사물의 이미지를 통해 생겨나는 화면의 표현 방법들을 실험해 봄으로서, 등(燈)의 내면적인 현상을 보다 서정적(抒情的)인 미(美)로 추구하고자 하였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서정적 추상표현의 발상과 전개	3
1) 등(燈)을 밝히는 의미	3
2) 원의 형상화를 통한 '등'(燈) 이미지	6
2. 기법적 표현방법 연구	10
1) 발묵과 꼴라쥬기법을 이용한 표현	10
2) 중첩에 의한 공간표현	14
III. 작 품 분 석	16
IV. 결 론	25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등(燈), 162.5×97cm , 섬유(천), 거즈, 떡, 2002

[작품2] 등(燈), 162×130cm , 천, 떡, 혼합재료, 2002

[작품3] 등대지기, 162×130cm, 천, 떡, 혼합재료, 2002

[작품4] 수도사의 등(燈), 116.7×91cm, 천, 떡, 삼베, 2002

[작품5] 등(燈)-잔상, 170×40cm, 아크릴, 물감, 거즈, 2002

[작품6] 등(燈), 91×116.7cm, 섬유(천), 거즈, 떡, 2002

[작품7] 등(燈))_기원, 73×91cm, 섬유, 거즈, 떡, 2002

I. 서 론

자연은 자연의 본성으로 사물은 사물의 본성으로 인간은 인간의 본성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만이 우주만물의 존재방식에 관심을 갖고 사유(思惟)와 추론(推論)을 통해 사물의 내적존재에 접근해간다. 인간은 내적 존재를 비유와 상징으로 관념화시키며, 사물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 하며 사물의 본성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기도 한다.

오늘날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문화를 결속, 형성시켜 나간다.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외래문화 속에서 문화적 발전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우리의 전통 기층문화(基層文化)요소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체계화 작업은 미신적(迷信的)이고 탈 문화적(脫 文化的)이라는 판단의 오류와 외래 지향적 사대의식(事大意識) 관심 밖으로 밀려 났으며, 전래 풍속들이 산업화로 인하여 무관심 속에서 점차 소멸되어 갔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최근에 들어서야 대중(大衆)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예술적인 유산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는 어둠을 밝히는 등(燈)의 존재 방식을 사유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서민들의 생활정서 속에서 안녕과 풍요를 염원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현대인의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화된 사회 환경을 직시하며 그러한 시각을 조형화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이 부조화(不調和)된 현실을 함께 인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전통적인 '연등'(燃燈)의 형상을 전통적 재질의 색감과 현대적 감각의 추상표현으로 이미지의 정의와 그 형성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을 원(圓)으로 조형화 하여 원(圓)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다라와 함께 정신적, 사상적 배경을 두고 살펴 보았다.

이와 함께 자아와의 내면적 감성의 결합으로 형성된 내적 음률의 이미지는 서정적인 추상표현을 위한 화면의 조형적인 탐구로서 먹(墨)의 재료적인 특성을 동양화의 사의적(寫意的)인 추상(抽象)으로 표현하려 하였고, 화면전반의 구성력을 찾기 위한 꼴라주의 복합표현은 현대적인 조형 공간의 간접 표현으로 회화성을 동시에 전개하고자 하였으며, 대상의 재현을 넘어 작가의 회화개념과 함께 상상의 세계로 이어지는 내면세계의 다양한 표현들을 변화 있게 시도하여 보았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본인의 작품들을 분석하고 그 정신적 개념을 확고히 설정하면서 앞으로의 창작 방향에 지침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본 론

1. 서정적 추상표현의 발상과 전개

1) 등(燈)을 밝히는 의미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현세의 평안(平安)과 장수(長壽), 화복(禍福) 그리고 생활의 풍요로움을 염원(念願)한다.

이러한 염원은 인류가 시작한 이래 인간의 삶에 영원한 주제로서 악귀를 물리치고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의미와 정서를 자연물과 수호적인 상징물에 담아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자의 기억을 통해 성장하면서 느껴졌던 삶의 의미를 등(燈)이라는 주제에 연계하여 표현하였으며 등(燈)의 쓰임도 다종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본 작품에서는 불을 밝히는 행위를 신앙의 대상으로 종교의식 속에 인간과 신을 잇는 중요한 매개의 수단으로 국한하였다.

일반적으로 등(燈)을 밝히는 것을 연등(燃燈)이라고 한다. 등(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예로부터, 등(燈)을 공양하면 광대무변한 공덕을 얻는다고 하였다. '등(燈)이란 어둠을 밝히는 기구이며 인류가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낸 이로운 도구 가운데 '등'(燈)은 그 연원이 아주 오래된 것으로, 불가의 연등도 일종의 주술이었던 것이 불가에 흡수되어 불교의례와 하나가 된 것이며 불이나 등화의 풍습을 연등과 혼동하여 그것을 주술적 제례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이 재앙에서 벗어나고 소원(所願)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의 종교(宗教)로 발전하게 된다. 인류에서 일관된 신앙(信仰)이 있다면 그것은 장생(長生)과 다복(多福)에 대한 욕구(欲求)로 벽사사상(辟邪思想)에서 오는 인간본연의 신앙이라고 하겠다. 1)

모든 사물은 존재 그자체로 혹은 인간의 사유, 상징, 은유 등의 인식체계에 의해 새로운 이미지를 얻는다. 그리고 인간은 사물의 존재로부터 과학적 지식과 철학적 진리를 얻는다. 등(燈) 또한 그러한 사물중의 하나로서 등불 앞에 서원(誓願)함을 통해 보여 지는 존재방식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에 의지를 투영하게 된다.

등(燈)은 빛을 발할 때 비로소 생명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등(燈)은 심리상태에 따라 떠오르는 태양과 달빛의 숙연함과 소유의 충만함, 희망, 극복, 인간의 의지의 도약과 같은 느낌을 갖는다.

이러한 우리의 삶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희로애락이 등(燈)속에 삶의 주관적 경험과 감흥을 바탕으로 다각도의 표현방법을 재구성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달 하고자 하였다.

인간을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으로 일컫게 된 요인 중의 하나는 불의 발견이었다. 태양, 달, 별에 의한 자연광의 영역에서 벗어나 인간 스스로 불을 얻게 됨으로써 어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졌고 빛은 인간에게 하나의 경이로운 대상이 되었다. 불은 한편으로 '밝기'로서 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사물을 가공하는 에너지로서도 활약한다.

1) 金美惠, “韓國畫의 概念設定을 위한 韓國民話의 分析”, 「공간」, 통권71호, 1973, p. 43

또한 불의 색과 모양이 갖는 신비로운 감정효과는 종교의식이나 축제에서 많이 이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빛은 불(빛)에서 감상되어지는 태양이나 그 핵이 상징하는 무한한 에너지와 밝음의 신비, 빛의 확산과 반사, 석양의 순간적인 찬란함의 모든 빛은 영원과 찰나(刹那)의 암시성을 내포하며 그 생명감은 환상적인 감동을 주어 결국 등(燈)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사람들에게 염원의 대상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또한 빛은 주로 어둠에 상반된 밝음의 근원이 되며 생성이나 선(善), 신성함, 영혼, 등 긍정적인 의미로 여겨진다. 그리고 빛은 서정적 세계를 상징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물리적 개념에서가 아닌 어떤 위력을 부여한 드높은 정신세계에 가장 내밀한 본질로 의미된다.

삶에 있어 우리는 늘 희망을 간직하고 싶어 한다. 보이지 않지만 사방에 떠돌고 있는 공기방울처럼 수 없이 깔려져 있는 희망들을 건지고 싶어 한다. 본 연구자는 그러한 희망과 꿈의 상징으로써 등(燈)을 선택 하였으며 등(燈) 하나하나가 모여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현대는 합리주의 사고와 과학정신의 발달로 인해 가치관의 혼돈, 정신과 물질, 인간과 자연,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무수한 장벽을 쌓아 놓았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원생적 본능과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게 되고 자신을 보호하고 소망을 이루려는 염원은 더 절실하게 되었다.

이처럼 현대의 물질문명은 많은 이기(利己)을 낳았고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이 같은 사회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인의 삶의 존재, 그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좀

더 고양(高揚)된 이념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한국의 전통 등(燈)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활에 존재하는 인류의 기층문화로,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수호적 의미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초는 제 몸을 태워감으로써 어둠을 가시게 하듯 이 등불이 비록 태양이나 전기 불빛처럼 순간에 강하진 못하나 보다 오래도록 은은히 빛을 발해 세상을 밝히듯, 현대인에게 오히려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주기를 기대하며 수호적인 개념의 모티브로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원의 형상화를 통한 '등'(燈) 이미지

무엇을 '본다'는 것은 그 '대상'과 보는 이의 '마음'이 서로 만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 진다. 우리는 사물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이미지'(image)를 보는 것이다.

'이미지'(image)란 우리의 '의식(마음)에 비쳐진 대상'이다.

즉, 어떤 형태를 보거나(지각) 만들어(표현) 낼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형성하는 중요한 주체가 되는 것이다. 실재로 우리가 이미지의 한 부분에 주의를 집중시킬때, 그 부분의 요소는 의미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등'(燈)의 이미지를 원(圓)이라는 조형적 형식을 통해 대상의 외적인 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심상을 서정적 표현으로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원(圓)의 의미와 상징적, 철학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원(圓)은 사전적으로 둥글다. 혹은 동그라미라 보여 지는 단순한 형태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보편적으로 정의 되어지는 의미 또한 단순하다.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원(圓)을 되짚어 본다면 그곳에는 보다 많은 의미들이 자리하고 있다. 동양에 있어서 원(圓)은 둘러 싸고 있는 모든 것을 보호, 강화하거나 제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중심, 혹은 그 중심에서 퍼져 나가는 모든 것을 원(圓)이라 부른다. 이러한 원은 영혼을 상징하며 모든 생명의 원천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철학자나 심리학자 들은 원(圓)은 정신세계의 영원성을 상징한다고 정의 하였다²⁾

이와 같이 원(圓)은 완전한 영혼, 의식 세계는 물론 무의식 세계까지 포함한 동일체로 실존의 본질로서 인간의 완전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 되어져 왔다.

또한 원(圓)은 회화적 매체로 이용되는 가장 간결하고 명료한 형(形)으로 자연에서 찾기 쉬운 형태이며 태양과 달은 원(圓)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등(燈)의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즉 떠오르는 해의 모습은 그 빛으로 인해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 형체를 쉽게 파악할 수 없지만 석양 무렵 저물어 가는 해의 형체는 완벽한 원형의 모습을 보인다.

반면 달의 경우는 원형으로 존재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형태는 태양, 지구, 달이라는 세 가지 천체의 위치관계에 따라 변하여 반달, 보름달, 그믐달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개인의 인식방법에 따라 해와 달의 모습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해가 뜨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의 모든 사물에서 선명하고 밝은 모습 즉,

2)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p. 162

희망적으로 느껴지며 지는 해의 모습에서는 모든 사물의 형체가 사라짐으로 인해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달이 변화하는 모습과 그 빛에서 우리는 은은함과 고요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상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인간의 본질적, 기본적인 형태 가운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내적 의미를 깊이 포함하는 원(圓)을 형상화 해 보았는데 심리적, 철학적 배경으로 만다라³⁾에 그 출발점을 두었다.

폰 프란츠(Marie Louise Von Franz, 1915-)는 원(圓)을 자아 개념의 상징으로 정의 내렸다. 원(圓)은 인간과 자연의 교섭을 포함하여 모든 측면에서 정신의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원(圓)의 상징은 언제나 삶의 유일지상(唯一地上)의 절대적 측면 즉, 삶의 궁극적 전체성을 가리킨다.⁴⁾ 인도와 극동의 시각 예술에서 원(圓)은 종교적 명상을 상징하는 기본형이다. 특히 티베트의 라마교에서는 풍요롭게 형상화된 만다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원(圓)이나 만다라의 상징은 오욕(五欲)이나 망상등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득도(得道)에 의해 성취되는 모든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상징하는 동시에 모든 방향으로 전개되는 우주를 의미하며 완전한 영혼을 포함한 동일체를 상징(上程)하게 되는 것이다.⁵⁾ 만다라에서 둥근형태가 상징하는 회전은 단순하게 원(圓)의 움직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신성한 영역을 선(線)으로 구획 짓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원(圓)의 순

3) 만다라는 ‘우주와 제신의 거처’를 뜻하며 명상의식을 돕는 복합적인 그림의 형상화로, 산스크리트어로는 ‘manda(중심, 본질)’의 어간과 ‘la(소유, 성취)의 접미사로 이루어진 말이다. mandala란 결국 중심 또는 본질을 얻는다는 합성어이며, 이를 다시 말하면 본질 그 자체 또는 심신을 원만히 하는 것이란 의미이다.

4) Aniela Jaffe [미술과 상징] 이희숙 역 (서울 : 열화당1979) p. 35

5) seckel Dietrich(1985), [불교미술], (서울 : 열화당), p. 275

회운동은 인간성의 모든 밝고 어두운 힘과 그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이들 힘과 상반되는 심리적 양극을 활성화하는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다.

특히 티베트의 불교 신자들이 그리는 만다라는 예술적으로 가장 완성미를 나타내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만다라를 명상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본적인 면을 보면 심리적 평형을 찾으려는 보수적인 목적으로 이전부터 존재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롭고 특이한 것에 표현과 형식을 부여하려는 창조적 목적에 있다.⁶⁾

이것은 인간부화(人間孵化, self-incubation)를 통한 자기인식을 의미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편리한 기기들 속에서 그 이기(利器)들이 우리들의 시간과 노력을 대신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활이 항상 바쁘게 돌아간다. 산업사회가 가져다준 경쟁의식과 빠름을 추구하는 속도의식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점차적으로 정신적 여유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여유'와 넉넉한 마음을 어디서 다시 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오직 외부로 향하는 통로로만 접속된 현실에서 정신적 사고와 수행을 필요로 하는 만다라 미술(영성적 심상의 의례)처럼 내면적 성찰과 사색을 위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상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해와 달의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 달빛의 은은한 정취와 강렬함을 느낄 수 있는 해의 이미지 속에서 현대인들의 무의식속에 마음의 등불을 켜고 끄면서 결코 소멸하지 않는 시간의 연속성을 느꼈고, 생활의 음영을 다스려 온 등(燈)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 혼혼함과 넉넉함을 가지게 한다.

6) 신은숙(1985), [예림5집], (이화여자대학교 학생회), p. 4

이것은 결국 인간이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실적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자유스러운 모습을 지닌, 간혀 있지만 간혀 있는 것이 아닌 무한의 의미로서의 원(圓)은 완전성을 함유한 극치의 조형적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원(圓)을 통해 무한한 등(燈)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2. 기법적 표현방법 연구

1) 발묵과 꼴라쥬기법을 이용한 표현

표현은 형식을 통한 내용(內容)의 형상화 인데 어느 작가이든 작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 내용과 형식의 표현원리가 생겨나게 되고, 회화(繪畵)에 있어서 표현의 형식은 그리는 것 그로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동양화에서는 추상(抽象)의 세계가 작가의 인격(人格)과 철학(哲學)의 여하에 따라 표현되어 지고 실존세계(實存世界)에 현상화(現像化) 하려는 의도로서 제작되어진다. 그러한 작품은 철학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작가의 천성(天性)을 외부대상(外部對象)의 특질(特質)과 결합시켜 심적인 형상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을 가능하도록 표현하는데 사용되어진 매체가 묵(墨)이었던 것이다.

묵(墨)은 묵 자체에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집약하는 함축성(含蓄性)이 내재되어 시적(詩的)인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직관(直觀)이나 관조(觀照)의 성격은

회화 공간속을 자유롭게 움직인다. 여기서 농담(濃淡), 용묵(用墨), 필세(筆勢)등의 다양한 변화와 대비는 적절한 지점에 강조 또는 집약되기도 하고 이완 또는 흩어지기도 하여 사의적(寫意的)인 추상(추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작업에서는 추상적인 형태와 화면구성으로 동양화의 수묵화 기법 중 먹의 번지는 효과 혹은 번져나가는 발묵법과 섬유(천)을 이용하여 표현하려 하였고 화면전반의 구성력을 찾기 위한, 꼴라주의 복합표현은 현대적인 조형 공간의 간접표현으로 회화성을 동시에 전개하고자 하였다.

먼저 발묵표현은 물과 먹이라는 재료가 만나서 순간적이고 촉발적으로 화면에 흐트러져 인위적인 작용이 갖는 효과 이외에도 묵(墨)에 본래의 성질이 지니는 번짐과 퍼짐의 상태가 자연발생적으로 더하여 지게 됨으로서 화면의 전체적구성이 거의 정해진다. 그러나 발묵만으로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번져가는 형태에 농담의 필묵을 운용하여 적당한 묵(墨)과 필(筆)의 조화에 의하여 그림이 완성된다.⁸⁾

또한 발묵 과정에서 생기는 비(非)정형(定形)의 양출(釀出)과 그 미지의 회화세계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언어와 사고로써는 이해 될 수 없는 무한한 것들로,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이를 수 있는 표현기법이 곧 발묵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묵은 회화 법칙에 구애됨 없이 흉중(胸中)의 일기(日記)를 그려, 높은 예술의 경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발묵법을 이용하여 비어 있는 화면 공간에서 발묵에 의해 면을 나뉘보고 윤곽선에 의존한 사실주의적 표현보다는 본인의 미적 감각에 맞고, 대상의 이미지 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직관에 의해 추상화 시킨 실루엣들을 등장시키면서 작품을 시작하였다.

7) 이경성(1975), 미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 일지사), p. 8

8) 최병식, 水墨의 思想과 歷史 (서울 : 현암사, 1985), p. 54

발목을 통해 나타난 추상성은 외적인 것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 내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려는 정신적 작용(精神的 作用)이자 본질을 파악하려는 심적 작용(心的 作用)에 체험의 표현으로 나타난 추상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발목이 갖는 본질은 추상성에 주목하고 과거와 현대의 미감을 수용하여 새로운 조형성을 찾고자 하였으므로 묵(墨)이 갖는 내적 지향성과 정신성의 반영으로 나타난 추상성을 받아들여 작업상의 조형매체로서 그 의미를 넓히고자 하였다.

폴라쥬라는 방법 자체는 서구적인 것이나 오늘날 현대미술의 개념에서는 단순한 기법상의 문제가 아닌 화면위에 보여 지는 하나의 표현 언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작품 속에 나타나는 폴라쥬 작업은 단순히 천 조각을 차례로 붙이는 것에서부터 화면위로 입체감을 주는 것이 아닌 평면적으로 한지와 천을 붙이는 동시성과 함께 반복의 효과로 일정한 통일감을 주어 한지에서 섬유(천)로, 또는 묵(墨)에서 천(삼베)으로 서로 자연스럽게 섞이고 상호보완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회화에서 폴라쥬는 화면위에 종이나 천, 나무껍질, 신문지, 색종이 등을 풀로 붙여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미술의 기법인 폴라쥬는 사물의 해체를 추구하는 분석적 입체주의(Analytic Cubism)에서 이후 분석된 것을 재결합시키는 종합적 입체주의(Synthetic Cubism)로 이어진다. 이때 종합적 입체주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것이 사물의 활용, 즉 현대미술의 전문용어인 폴라쥬(collage)가 등장한다.

폴라쥬는 새로운 회화공간 개념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전의 회화예술이 원근법

이라는 착시효과를 이용하여 공간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근법적 공간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입체주의 조차도 그 공간은 화면 자체를 넘어서 있으며, 어떤 시각적 한계도 구획 지을 수가 없다.⁹⁾ 하지만, 꼴라쥬는 화면에 붙여진 실물 그 자체가 지닌 공간감을 발생시키고 있다. 실재로 꼴라쥬의 구성요소는 두가지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형태를 지우기도 하고 배합되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선이 그어지거나 물감이 칠해짐으로서 그것들에게 재현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꼴라쥬는 재료의 단편으로서의 원래의 형태를 잃지 않고 있다. 따라서 꼴라쥬는 '재현하는'(어떤 이미지의 일부가 되는), 그리고 '현존하는' (재료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두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겠다.

본 작업에서 쓰이는 꼴라쥬 재료는 한지와 섬유(천). 거즈이다. 한지는 습윤과 건조를 통하여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쉽게 다룰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며 광택은 일반 천보다 가공되지 않고 인위적인 느낌이 적어 거칠면서도 반면에 은은하고 푸근한 느낌을 자아낸다. 또한 거즈는 특성자체는 얇으면서도 부드러워서 흡수성이 뛰어나고 맑게 나타나는 속성을 지니면서 투명성과 신비감을 주고자 하였다.

재료의 종류마다 다른 특수성을 감지하며, 본인이 표현코자 하는 내용에 알맞은 꼴라쥬를 사용하였다. 섬유(천)는 직접 제작한 화판에 한지를 붙이고 밑 작업한 종이위에 섬유(천)을 꼴라쥬 해 가면서 화면에서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형태와 구도에서의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특히 섬유(천)로 스며드는 묵(墨)의 번짐을 재구성하여 연결시키는 작업은 꼭 붓이나 물감으로서가 아닌 손가락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손끝에서 연장되는 것이어서 즉흥적인 감정을 갖고 작업을 하였다. 판

9) H, W 켄슨, (미술의 역사), 金潤洗, 삼성출판사, p. 618

에 의한 간접표현으로 이루어진 섬유(천)을 이용한 꼴라쥬작업은 화면내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현대적인 조형공간을 모색하는데 좋은 재료가 된다고 생각되어 꼴라쥬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중첩에 의한 공간표현

우리의 삶 생활 속의 본질을 생존하는 것뿐만이 아닌 각자가 추구하는 내면의 정신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의 전체를 이루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외적인 형태로도 반영되어 진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면의 세계를 보게 됨으로서 하나의 과정으로 전체를 보게 된다. 또한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은 모습보다는 생각과 내면의 세계인 것이다.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삶 뿐 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형태의 영역에서 이러한 실재성을 드러내기 위해 등(燈)의 이미지를 도입하여 그것을 한지와 섬유(천)의 겹침으로 드러내는 것과 감추어지는 것의 이중적 중첩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작품제작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화면구성에서 구체적인 대상의 표현이 아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감정을 주관에 의해 표현하기 때문에 내면의 욕구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시각화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표현방식을 시도하여 기법상의 활용을 통해 작품에 적용시켜 보았다.

우선 평면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다소 입체감이 나도록 여러 겹의 한지로 밑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섬유(천)와 섬유(천)가 중첩이 되도록 꼴라쥬를

통해 변화를 주었다. 꼴라쥬는 화면의 재질과 같은 광목천, 거즈, 삼베(섬유)를 이용하여 동질에 느낌으로서 은은한 화면상의 효과를 추구한 것이다. 밑 작업이 이루어진 뒤에 물기를 많이 가한 맑은 먹을 이용하여 화면에 그려 나감으로써 그 안에서 자유로운 형태들이 나타나게 하였는데 이때에 우연적으로 생긴 옅은 먹빛(墨色)의 형상들은 추상적인 형태를 띠면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형상화 한 듯한 느낌을 자아내게 한다.

작업 과정 중에 이러한 표현들은 가려지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형상들은 화면 안에서 하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작은 부분으로 남기도 하여 전체적인 화면에서 아련함과 신비함, 현실의 공간이 아닌 또다른 공간 세계로서, 우리를 상상의 세계로 이끌기도 한다. 이러한 무한한 공간감의 표현을 위해 중첩에 의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내면적 체험과 그를 통해 형성되어진 감수성은 창작 과정에 있어서 감성의 흐름을 주도하는 힘이 되는 것이며, 이는 자아의 서정적 주관성이 투영된 등(燈)이미지의 표출로써 귀결된다.

Ⅲ. 작 품 분 석

인간은 역사와 일상의 삶을 바탕으로 더 나은 무언가를 창작 하려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를 표현 하고자 하는 조형 표현으로 이어진다.

이로써 예술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예술가의 주관적 감성에 의해서 재구성,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 주어진 대상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예술이 그 시대적 환경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개인적 성격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작가로 하여금 그것을 표출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자유 체계 안에 존재한다.

전통이란 그 위에 서서 미래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 민족이든 그들이 생활해온 방식 속에는 그들의 의식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예술표현, 즉 전통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결합된 흐름 속에서 단절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예술표현과 문화 속에 그들은 바로 그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해진다.

작품의 주제가 된 등(燈)은 종교 의식과 서민의 염원의식이 담긴 사찰의 연등행사로, 언제나 우리생활 주변에 잠재적으로 익숙하고 친근해져 왔다. 우리민족의 정취가 물씬 담겨 있는 따스함과 넉넉함을 가지게 한다. 또한 이러한 모습과 형태들은 시각적인 즐거움과 여유를 주며, 토속적인 이미지와 자연스러움을 형성해 준다.

이에 등(燈)에 생(生)의 의지를 사유(思惟)하고 연등(燃燈)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원(圓)의 상징적 이미지를 조형화 하며, 각 작품마다 새로운 각도에서 각기 다른 등(燈)의 이미지를 함축시키고 단순화시켜 그 내적의미인 내부적인 갈등, 집착, 고요, 정화 등의 심리적인 의미로서 서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제작에 있어서 정감 있는 소재인 삼베와 광목천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향수를 느끼게 하며 표현 재료로서도 푸근하고 은은하면서도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거즈를 여러 번에 걸쳐 올리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그 형상을 드러나게도 하고 가려지게 표현하면서 그러한 반복적인 쌓임 속에서 좀더 선명해 지기도 하여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분위기의 화면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섬세한 감성적 표현을 화면에서 담아(淡雅)하게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기본적인 먹의 번짐과 여러 가지 종류의 섬유(천)재료를 이용하여 내적인 감성을 보다 서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1] 등(燈)

- 작품크기 : 162.5×97cm
- 제작년도 : 2002
- 작품재료 : 섬유(천), 거즈, 먹

인간은 항상 유토피아를 꿈꾼다. 꿈꾸는 주체가 창조의 영역에 속할 때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며 다양한 매체 속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은 첨단 매체들로 서로 연결되면서도 강한 익명성을 띠는 이중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현대인의 구속감과 경직성에 대해 항상 해탈을 꿈꾸고 나름의 유토피아를 찾는데 열중하며 작품을 통해서 진실을 표현하고 나아가 자신 스스로가 현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이 작품은 필선(筆線)들이 이루고 있는 형상과 운율은 내적 자아와 갈등과 생명의 연속성을 표현 하고자 했고 그 움직임으로 시간성과 자유의지를 나타냈다.

사찰의 연등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자신의 환상과 꿈, 좌절, 희열, 열정 등의 감정이 투여된 일종의 자화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때로는 유토피아적 이상향의 동경을 은유하려 하였고, 즉흥적 표현에 의한 선적인 요소들과 담묵으로 표현된 형태들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하나의 형상으로 결합되어 화면을 구성하는 종이와 거즈의 중첩들은 형상과 형상의 사이에 표현되어지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내적인 음률의 리듬감을 표현하였다.

[작품 2] 등(燈)

. 작품크기 : 162x130cm

. 제작년도 : 2002

. 작품재료 : 섬유. 거즈. 떡

이 작품은 등(燈)의 여러 가지 이미지, 순간적 인상에 대한 기억 등을 표현하고 실재적 형상을 단순화 하여 따뜻함과 편안한 기조를 이룬 가운데 조형적 요소인 원과 선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등(燈)을 표현의 대상으로서 관심을 갖고 작업하려는 것은 등(燈)을 대하는 시각과 표현방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나타나게 되며 등(燈)을 통해 느껴왔던 생생한 경험들을 화폭을 빌어 이야기하듯 순수하고 자유롭게 제작하기 위해 광목과 섬유(천)을 통한 효과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매개체로서 사용하였다.

또한 등(燈)의 형태에서 느낀 순간적 인상을 원(圓)과 선(線)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때 등(燈)의 객관적인 외형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재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관찰을 통한 정서를 나타내려 하였다.

[작품 3] 등대지기

- 작품크기 : 162×130cm
- 제작년도 : 2002
- 작품재료 : 천, 먹, 혼합재료

등(燈)은 신기루와 같아서 쉽사리 자신의 신비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등(燈)이라는 주제를 통해 등불속의 빛을 대변 할 수 있는 일상의 빛과 달빛, 석양빛의 찬란함, 새벽녘 빛 등을 등(燈)과 깊이 밀착시키고 자연이라는 한 부분을 확대 시켜 찰나(刹那)의 순간들을 대상으로 조형화 해 보았다.

이 작품은 일출의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막 솟아오르는 듯한 형태로 해의 이미지를 포착하고자 했다. 반원형태의 천(섬유)은 새벽녘에 꿈틀거리며 이제 막 소생하려는 듯한 빛의 잉태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완전히 빛을 받지 않은 대지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푸르스름하게 염색한 거즈를 사용 하였다. 그리고 넓게 퍼진 담묵과 농묵바탕위에 거즈를 부분적으로 붙이고 그 위에 유동적인 선을 화면전체에 희미하게 표현 하면서 생겨나는 부드러운 이미지들을 통하여 동 터오는 에너지를 율동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그것을 서정적인 화면의 분위기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4] 수도사의 등(燈)

- 작품크기 : 116.7X91cm
- 제작년도 : 2002
- 작품재료 : 천, 먹, 삼베

이 작품은 내면적 질서와 연등으로부터 유도 되는 힘, 등(燈)속에 내재하는 스스로를 태워 빛을 발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다양한 의미로 상징되어 왔으며 어둠 속에 흔들리는 촛불의 신비한 빛은 인간을 쉽게 몰입시키고 이에 따라 감정이입(感情移入), 회상(回想), 상상력(想像力), 인간의 의지의 도약을 느끼게 해 준다. 그러한 것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했다.

매년 사월 초파일에 양산의 수도사는 연등으로 경내(境內)를 감싸고 있었다. 연등은 수행을 통한 성불의 의지를 가시화한 도상이자 질서이다.

바람에 휘날리는 형형색색에 사찰의 연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감성과 더불어 내부의 집착, 고요, 정화의 상징으로 주변 세계와의 피할 수 없는 연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운 지금, 등(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내성(內省)의 시간을 갖고자 함을 표현 한 것이다.

바람과 빛의 결합으로 두둥실 떠가는 다양한 형태의 등(燈)이 유동하는 흐름 속에서 퍼져나가는 발묵으로 화면을 구성해 보았다. 그리고 번져진 곳에 리듬감을 부여해 대상의 정확한 묘사 보다는 필선(弼線)으로 공간에 대한 기억들로 화면을 서정성(抒情性)있게 처리하였고, 조형적 감각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묵(墨)이 갖는 선염적(渲染的)인 발묵법과 꼴라주로 다양한 화면의 구성과 현대적인 구성을 시도해 보았다

[작품 5] 등(燈)-잔상

- . 작품크기 : 170×40cm
- . 제작년도 : 2002
- . 작품재료 : 아크릴. 거즈. 물감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 나름대로 미적 감동을 체험하고픈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등(燈)은 그 매체 중의 하나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며 생성, 소멸의 법칙 속에 존재하고 있는 빛의 객관적인 외면의 형태와 나의 내면적 의미 부여가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형상으로서 등(燈)의 이미지를 생성한다.

나의 등(燈)의 이미지는 상황의 '순간'적인 재현(빛의 잔상)을 통해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품에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가로선과, 기억의 단편을 의미하는 원(圓)형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 공간으로 그 흐름의 연결을 일정한 리듬 속에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원(圓)형태의 빛의 입자들이 입체로 짜여진 아크릴 속에 형광빛은 특수한 시각적 효과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속성 이나, 초월성 같은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방사하는 색과 겹쳐져 조화로운 색조로 여과되고, 그 자체로도 고요한 평면위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

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적막한 기억의 잔상에 가장 순수한 감성적인 빛을 불어 넣어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에 대한 기대를 꿈꾼다.

[작품 6] 등(燈)

- . 작품크기 : 91×116.7cm
- . 제작년도 : 2002
- . 작품재료 : 섬유(천), 거즈, 먹

이 작품은 바람이 많아지고 과하게 되어 집착하게 되는 심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작품에 원형을 사용한다. 원(圓)에 플라톤은 원을 완전한 도형이며 언제나 존재할 존재 즉, 신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한편 불교에서는 원(圓)이라는 뜻이 만다라와 연계된다.

만다라는 모두 자기의 내면적 현실과 외면적 현실을 종합하는 양극으로 원형적인 자연의 힘을 인식한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하나의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작업인 중도(中道)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강한 의지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서고자 함이며 외부의 환경이 균형을 깨뜨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자세로 고민이나 욕심들이 하나 둘씩 해결 되어 가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때의 희열을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다.

큰 원형의 형상은 내부에서 자생되는 에너지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로서 스스로 찾아낸, 고요히 생성되고 있는 희망이자 정신적 에너지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작품 7] 등(燈) - 기원

. 작품크기 : 73×91cm

. 제작년도 : 2002

. 작품재료 : 한지. 섬유. 거즈. 먹

예술 작품에 있어서의 형태(形態)는 인간의 의지(意志)의 눈으로 포착한 형상의 본질적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어떤 의미를 담는 실체(實體)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형태(形態)는 작가가 대상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작가의 주관에 의해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면을 생략하고 적절한 형태의 조형요소들을 선택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전통재료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면을 등(燈)으로 표현했는데 한지와 섬유(천), 거즈라는 재료를 사용하며 한국의 고유한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기하학적 형태를 표현하였다.

화면의 공간과 깊이는 색채 상호간의 짜임새와 밀도에 따라 표현 되면서 재료가 갖고 있는 특유의 고유색과 작품 그 자체인 표현을 통해 그 특징이 화면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종이와 섬유(천)로 밀작업된 부분에 발목이 가해지고 섬유와 거즈를 겹치는 반복의 행위로 작품에 임하면서 자연스레 감성에 의한 색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마치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고 등(燈)을 향해 마음을 정화하며 복(福)을 기원하듯이 나만의 소박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반복 작업을 수행과 같은 마음자세로 줄곧 견지하게 해주었다.

기원 작품에서는 주로 거즈와 섬유를 사용하였으며 천 위에 먹의 농담을 이용하고 광목천이 가진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전통재료를 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인위성을 최대한 배제하며 전통적인 미를 현대 감각의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IV. 결 론

예술가는 생활 속에서 표현대상을 선택, 내면의 의식을 대상에게 부여하여 객관화 시킨다. 본 연구자는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등(燈)의 신비로운 힘에 대한 회상과 더불어 등(燈)의 이미지를 통하여 대상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등(燈)을 밝히는 의미와 이미지를 원(圓)으로 형상화함으로서 원(圓)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다라와 함께 정신적, 사상적 배경을 두면서 내면세계의 자기 존재에 대한 균형감을 찾기 위한 표현 방법이었다.

「등」은 외견상의 등(燈)이 아닌 자신의 감성과 더불어 내부적인 갈등, 집착, 정화 등을 내포한다. 삶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인식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등(燈)은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으로 내면의 정신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등(燈)을 통해 생기는 이러한 넓은 의미의 이미지와 빛이 머무르고 투영하는 순간적인 이미지의 감각적 표현을 작업을 통해 내면세계의 연상되고 상반된 감정들의 대립되는 이야기들을 섬유(천)와 섬유(천)의 겹침 속에서 중첩되고 나열되며 한지를 밑작업으로 그 기운들에 의한 ‘등’(燈)의 이미지를 표현 하였다.

작품제작에 있어서 등(燈)의 내적 질서인 추상적(抽象的)이미지의 다양한 변화를 중심으로 이를 단순화시켜 표현하였고 동양화에서 전통적으로 보여 지는 기법들을 좀더 과감하게 현대적으로 수용하여 추상적 형태를 이루었으며 발묵과 풀라주의 표현이 담긴 섬유(천)의 자연스런 조화를 통해 서정적 이미지를 표출해 본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실험적 양상만으로 그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이 절실히 필요로 함을 느끼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용환, 「만다라의 깨달음에 영성세계」. 열화당. 1994
- 金美惠. 「韓國畫의 概念設定을 위한 韓國民話의 分析」. 「空間」. 통권 71호.
1973
- 선문빈. 「연등공양이야기」. 감로 출판사. 1997
- 이경성. 「미술이란 무엇인가」. 서울:일지사. 1975
- 林榮芳. 「현대미학의 이해」. 博英社. 1983
- 안소연. 「mind space전 서문」. 호암갤러리. 2003
- 정명호. 석등(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99
- 전통등 연구회. 「전통등」. 부처님 오신날 봉축 위원회. 2000
- 최병식. 「水墨의 思想과 歷史」. 서울:현암사. 1985
- H.W 젠슨. 「미술의 역사」, 김윤수 외 저. 삼성출판사. 1978
- seckel Dietrich. 「불교미술」. 열화당. 1985
- bruno Munari. 「예술로서의 디자인」. 김윤수 역. 서울,일지사. 1971

학위논문

- 김혜란. “墨과 色에 의한 내적이미지 표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 김희정. “도제장식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1993

김옥진. “드러나는 것과 감추어지는 것”.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2002

신은숙, 「원의 형상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회:예림 제5집. 1986

ABSTRACT

Lyrical Abstract Expression of Light through Indian Ink and College Technique

- Centering around My Work -

Kim, Eun Ha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tists want to show the feeling in inside through the works of art. It can be said that the meaning is given in rousing sympathy by objectifying. Thus, the contents expressed with original painting style by reacting by society or culture environment becomes the whole of all the experiences of artists.

So, all the daily lives become the symbol of significant feeling to each individual to by art.

Light is referred to as illumination too that human beings created and developed from the desire for lightening dark side by using fire.

As for the kinds of lights, the forms are diverse. Then, this researcher tried to express the meaning of life in which there is the aesthetic sense of

prayer and dearist wish in uniting Korean aesthetic sense and modern sense with the material of light of temples to be used much in religious ceremony or festival.

Candle light lit in light has been symbolized with diverse meanings to human beings in the course to emit light by burning for itself, and the mysterious light of candlelight to tremble in darkness makes human beings be absorbed easily, and the conscious activities of human beings such as empathy, retrospection, and imagination etc. become manifest.

Thus, it is necessary to visualize the image of things plastically, expressing the image for the external form of light by making circle into form.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theory about this thing and symbolization, described the details that the image of light came to express the inside world of human beings, and handled the symbolical meaning that the plastic nature of light has as theoretical background.

In this work, as for the existence method of light, that is, light in lamp is conserved dangerously in wind. But, this researcher made the strong life power into molding with the contents of jump of human will speculated as the will of life.

It can be examined how Indian ink and fiber are harmonized in the course of manufacture. Then, this researcher tried to make lyrical image through the autonomy of molding and the impromptu expressivity.

Especially, collage technique by picture was one method of lyrical abstract expression to use the overlap of Korean paper and cloth. And, this researcher tried to seek the inside phenomenon of light with more lyrical beauty by experimenting on the expression methods of picture to appear such image of things.